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이택면
출장기간	2023년 3월 29일 - 2023년 4월 1일		출장지	일본 도쿄		
출장목적	<input type="checkbox"/> 동아시아 성인지예산 도입 국가에 대한 이해 및 한국사례 경험 공유 <input type="checkbox"/> ADB, ADBI 공동주최 포럼 참석 <input type="checkbox"/> 한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소개 및 타국 성인지예산사례에 대한 토론					
경비부담	-주최측(ADB) 부담					
주최기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I)					
	기관/참석자			행사내용		
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ADBI : Tetsushi Sonobe (Dean, CEO)○ ADB : Keiko Nowacka (Senior Social Development Specialist - Gender and Development), Prabhjot Khan (Social Development Specialist - Gender and Development), Aekapol Chongvilaivan (Senior Economist - Public Finance)○ International Experts : Janet Stotsky (International Fiscal and Gender-Responsive Budgeting Expert), Hannelore Niesten (International Expert on Taxation and Gender)○ Delegates from Asian Countries : Badamstsetseg Bakhnaa (Head of Tack Audit and Methodology Department) from Mongolia, Teresita Angeles (Deputy Commissioner, Bureau of Internal Revenue) from the Philippines,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인 지 예 산 제 도 의 의의와 필요성○ 세출 측면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세입 측면의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 모범 운영 원칙에 대한 국제 전문가 발표○ 각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사례 발표 및 토론○ 인도네시아, 피지,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시범사업 국가들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23. 4. 11

출 장 복 명 자 : 이 택 면

국외출장보고서

The 3rd Annual ADBI Forum on Expanding Women' s Participation
in the Asian and Pacific Economies :
Promot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Women through Taxation
and Budget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1. 출장개요

- 과제명: 2023 성인지예·결산 추진사업
- 출장지역: 일본, 토교
- 출장자: (연구진)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 방문기간: 2023. 3. 29 - 4월 1일(3박4일)
- 비용부담: ADBI 부담

- 동아시아 성인지예산 도입 국가에 대한 이해 및 한국사례 경험 공유
- ADB, ADBI 공동주최 포럼 참석
- 한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소개 및 타국 성인지예산사례에 대한 토론
 - ADBI에서는 아태지역 경제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연례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3차 포럼은 ADB와 공동주최로 조세와 성인지예산을 통한 여성 지위 향상을 주제로 실시함.
 -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되는 포럼 세션 중, 31일 세션인 “성인지예산Ⅲ: 성평등을 위한 성과”세션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한 현안에 대한 토론을 본원 성인지예산센터 이택면 선임연구위원에게 요청함.
 - 이에 동 포럼 참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개도국의 성인지예산 도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함.

<주요 논의사항>

- 젠더와 조세, 성인지예산 양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
- 포럼 참가국(몽고, 필리핀, 솔로몬제도, 파키스탄 등)의 조세 및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발표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사례와 경험 공유
- 성인지예산제도와 조세정책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평등

□ 상세 일정 :

날짜	일정	상세내용
3/29 (일)	◆ 출국 인천(한국) → 나리타(일본)	
3/30 (월)	◆ 포럼 참가(09:00-18:00)	<p>*포럼 소개: “Introductions to the Forum” Keiko Nowacka, Senior Social Development Specialist (Gender and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ADB) Prabhjot Khan, Social Development Specialist (Gender and Development) ADB - 포럼 목적, 참석자 소개</p> <p>*기조강연 : “성인지예산과 조세” Gender-Responsive Budgeting and Taxation: key policy areas to support gender equality Janet Stotsky, International Fiscal and Gender-Responsive Budgeting Expert</p> <p>* 발표1 : “Gender Equality and Taxation I: An Introduction, Gender Equality and Taxation II: Country Case Studies” Hannelore Niesten, International Expert on Taxation and Gender</p> <p>* 발표2 :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 A Guidebook for Practitioners” Janet Stotsky</p> <p>* 토론 :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I: Good Practice Case Study” Moderator: Prabhjot Khan</p>
3/31 (화)	◆ 포럼 참가(09:00-13:30)	<p>*발표3: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II: Outcomes for Gender Equality” Janet Stotsky</p> <p>*토론: 몽골, 인도, 한국의 성인지예산 제도 시사점 좌장 - Donghyun Park, Economic Advisor (Strategic Knowledge Initiatives), ADB / 토론자</p> <p>* 국가별 분임토의 :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V: Group Exercise: Opportunities to Integrate GRB into the Budget Cycle”</p>
4/1 (목)	◆ 입국 나리타(일본) → 인천(한국)	

2. 발표 및 논의 내용 요약

□ 3월 30일

- 기조강연 : “성인지예산과 조세 : 성평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분야”

성인지예산과 재정제도 개혁에 대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로서 많은 학술 연구를 통해 성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현재는 은퇴하여 ADB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성인지예산과 재정정책 성주류화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Janet Stotsky 박사는 이번 기조강연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ADB 지원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국가 재정의 두 큰 축인 조세와 지출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제도설계를 주문하고 있음. 총 4개 파트로 구성된 프리젠테이션에서 1부와 2부를 할애하여 성평등 관련 국제 추세를 리뷰하고(1부), 성평등 수준과 경제 발전 혹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함(2부).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각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 중 재정정책(지출과 조세 관련 정책)을 통한 성평등 증진 노력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성인지예산 제도임을 강조.



- 발표 1: “젠더와 조세 I,II: 개요와 각국 사례”

성평등 관점의 조세제도 전문 연구자이자 ADB등 국제기구에서 세제개혁 관련 컨설팅을 맡고 있는 Hannelore Niesten 박사는 이 발제를 통해 왜 세입관련 의사결정에 성평등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각국 조세제도에서 어떤 성불평등적 요소들이 발견되는지,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조세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실제로 각국 사례에서는 어떤 성평등 조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보여줌. 조세제도는 그 설계 여하에 따라 성평등을 촉진할수도 성불평등을 심화시킬수도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등적일 수 있는 세제(예컨대 간접세는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제도를 정비하거나 개혁함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조세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성 창업 활성화, 건강 및 교육, 교통 에너지

및 여타 사회기반시설 투자, 사회보장제도, 저축 및 자산소유, 소비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증진되는 방향으로(혹은 성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성불평등적 요소를 갖는 조세제도의 사례로는 개별조세(individual taxation)와 구분되는 부부합산 세제(joint taxation), 남성 혹은 남성 가구주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세제,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법인세, 남성 지배적 업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남성 집중 상품 소비를 우대하는 간접세제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세제 개편 노력의 사례들을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간접세, 재산세 등의 영역별로 소개함.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혜택, 간접세 분야의 여성 청결제 소비세 감면 등이 사례로 소개됨.

- 발표 2 : “성인지예산 I: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Stotsky 박사는 이 발표를 통해,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행에 직접 관련돼 있는 실무자와 관리자들이 예산과정 혹은 재정관리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성인지예산의 취지와 원칙, 의의 등을 설명하고 실제 각 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를 제시하고 비교결과와 함의를 논의함. 성인지예산을 “정부의 지출 및 조세 정책과 같은 재정정책 도구 혹은 재정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성평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통해 성평등 증진의 결과를 낳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을 성인지예산의 요체라고 규정. 예산과정을 계획, 예산편성 및 확정, 예산집행, 평가 및 환류 네 단계로 나누고 예산편성 및 확정 단계까지는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 대한 성분석을 토대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예산집행과 평가 및 환류단계에서는 세출예산 중심으로 예산지출의 성평등 증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인지예산 사이클의 핵심이며,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각국의 재정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토론 : “성인지예산 II: 모범사례 연구”

Stotsky 박사의 발표에 이어 ADB의 사회개발 전문가(젠더와 개발)인 Prabhjot Khan 박사의 사회로 행사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몽골, 인도네시아, 피지, 파키스탄)이 자국의 성인지예산 모범사례를 소개함. 몽골의 경우 젠더 패이갭은 16.3%,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49.9%로서(남성은 65.2%) 노동시장 성격차가 현저한 가운데, 성인지예산도입 10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재 2개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안편성지침에 성인지예산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58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을 적용하고, 1500명 이상의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발표함.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실 주관의 국가전략계획에 성평등 관련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2022-2024 전략계획에는 성주류화가 국가 발전전략의 하나로 채택됨.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성주류화 시행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 명시하여 행정부 수반 차원에서의 실행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함. 기획부, 재무부, 내무부, 여성부 등 4개 중앙부처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확립하고, KRISNA system이라고 불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추적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사업을 관리하며, 공무원 대상 지속적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월 31일

- 발표 3: “성인지예산 III : 성평등 성과”

Stotsky 박사는 이 발표를 통해 각국의 성인지예산이 제도화되는 방식은 다양하

지만 공통적으로 씨름해야할 질문은 성인지예산을 통해 어떤 성평등 성과를 보았느냐라고 주장.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관련 성과를 크게,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economic empowerment), 여성의 대표성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representation and agency), 젠더폭력 근절, 여성의 복지증진 및 가구내 무급노동의 성별 공평 배분(welfare and equal distribution of unpaid domestic work) 등으로 구분하면서 각 토론자들에게 자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을 통해 이 분야별 성과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두드러졌는지를 질문함.

- 토론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성평등 성과에 관한 사례보고”

ADB의 경제자문위원(Strategic Knowledge Initiative 분야) 박동혁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Trotsky 박사가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 3명의 토론자가 자국의 성평등 성과 혹은 관련 성인지예산 추진 전략을 소개함. 본원 이택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2023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들을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여성의 대표성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여성의 복지증진 및 가구내 무급노동의 성별 공평 배분 등의 분야로 구분했을 때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전체 대상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방점을 둔 성인지예산 운영이었음을 지적함.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남녀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성인지예산서상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사업들인 “여성의 복지증진 및 가구내 무급노동의 성별 공평 배분”과 관련한 사업들(전체 성인지예산 사업의 17.7%를 차지)을 추진한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맞벌이 부부에서 남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함. 한편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성인지 정책기획 및 예산 컨설팅으로 활동하고 있는 Alexandra Vladislavljovic는 몽골 등 아시아 국가 컨설팅 경험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의 성인지예산 실행 과정에 대한 분석 경험을 종합하여, 성인지예산이 실질적 성평등 성과를 낳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함. 제도 시행의 초보단계에서는 기존 지출과 세입을 변화시켜 성평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낳도록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제도가 안정화될수록 시급한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타겟 영역을 신규로 발굴하여 재원을 집중할 수 있는 재정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국정우선과제를 발굴하고 그 실행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마지막으로 ADB의 사회개발분야 선임관(senior social development officer)인 Deepa Ahluwalia는 인도의 다수준적(multi-level) 성인지예산 접근방식을 소개함. 중앙정부 수준의 성인지예산을 추진하되 지방정부(state and local level)의 성인지예산과 밀접히 연계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성평등 정책 드라이브 효과가 실제 지역주민에게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제도설계한 사례를 공유.



- 국가별 분임토의 : Group Exercise

포럼에서 논의되고 소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피지, 몽골 등 4개 국가를 중심으로 각 국가가 저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성인지예산서(Gender Budget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함. 각 국가의 대표단들이 직접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타국가 전문가와 ADB 컨설턴트들이 각 국가에 배치되어 그들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 본원 이택면 선임연구위원은 피지 그룹의 좌장을 맡아 피지 여성부 및 재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국 공공서비스행정부(우리나라 행안부에 해당)의 여성 공무원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컨설팅함. 이 과정에서 ADB가 제시하는 표준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이 활용됨. 표준 양식에는 프로그램, 하위 사업(단위, 세부) 내역, 상황적 분석(situational analysis: 해당 프로그램 영역의 성불평등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 사업별 개선사항(성불평등 이슈 해결을 위해 각 사업에서 어떤 점을 개선할 것인지 제시), 투입산정(예산규모, 사업기간, 인력 등), 산출 및 결과, 산출 및 결과지표와 목표치 제시 등의 양식으로 되어 있음.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서와 달리 프로그램 수준에서 분석을 하고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성인지예산제도는 형식적 요건과 절차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예산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출 및 세입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 개선 효과(성과)가 도출되었는지가 더 중요함. 우리나라는 제도의 형식성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 성평등 성과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느꼈음. 즉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과 지향적 성인지예산제도로 탈바꿈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현재와 같은 지엽적 개별 사업 중심의 관리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 단위 혹은 전략목표 수준에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업들을 핸들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계획 등 성평등 관련 전략계획이 더 치밀하게 수립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 전략계획에 입각하여 개별 부처에서는 전략적 성평등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배열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개별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략적 성평등 목표의 달성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양식도 ADB표준 양식처럼 프로그램 중심 작성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4. [별첨] 한국사례 발표자료, 행사 프로그램